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12-18]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찌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분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사람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결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으며, 선한 일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빠르게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 분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위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따르던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위해 그 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구원사역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평생 삶 동안 동행하시며 그 일을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을 사용해 성화의 단계로 완성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이뤄나갑니다. 구원은 삶이며 이 일을 위해 우리 평생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합니다. 예를 들어, 정비 일을 생각해 본다면 문제가 발생한 후 수리할 것인지 정기점검을 통해 문제발생을 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강한 유혹이 발생하는 영역을 피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에서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글귀가 담긴 액자를 본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머리이시며,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모든 대화를 조용히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문장을 의미 없이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진실한 고백으로 삼으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서 2:14). 세상은 불평과 잘못을 찾아내는데 바쁩니다. 믿음의 고백을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다루십시오. 섬기는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긍정적으로 대하십시오.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고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시기 위해 그 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길 기뻐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수단과 변명을 사용해 복음을 무시하고 구원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은 동일한 변명거리를 또다시 이 세상에 주기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 살아갑니다. 본성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부름 받은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는 성품은 우리들을 세상의 필요에 반응하도록 이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둘이서 함께 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유정도 따위로 전락해버릴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복음을 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취해야할 적절한 마음가짐인데 이것은 경외함과 존경심을 말합니다.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13).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께서는 그 일(복음전파)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 분을 자랑할 것입니까? 여기서 "자랑"이란 단어는 "높이다"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사용됐음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수고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분이 다시 오심을 기뻐하며 그 분을 높이고 오직 그 분께서 하실 일들만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지만 약속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엔 우리의 모든 수고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 날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화될 것입니다. 그 날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옳았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 분 스스로 확정지으셨습니다.